



「언젠가 무지개 너머에서 다시 만나자.」

제작: 나오 (@M3_Wor1d)

시나리오 카드: 나오 (@M3_Wor1d)



시나리오 정보

- 인원: KPC1+PL1 (타이만)
- 배경: 현대, 개변 가능.
- 예상 플레이 시간: 약 4시간(채팅 플레이 기준)
- 키퍼링 난이도: ★★★★★
- 플레이 난이도: ★☆☆☆☆
- 추천 기능: 듣기, 관찰, 식물학
- 전투 없음, 탐사 및 롤플레이닝 위주
- 시나리오 내에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다양한 연령대의 KPC를 만날 수 있습니다.
- KPC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연인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소꿉친구관계, 연인관계 등 KPC와 함께 한 추억이 많은 탐사자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시작하며...

- 본 시나리오는 CoC(크툴루의 부름) 수호자 룰북을 기반으로 작성된 비공식 팬메이드 타이만(KPC+PC) 시나리오이며, 하우스 룰 및 신화 생물에 대한 자체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로맨틱한 서사를 첨가하여 1:1 타이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KPC와 탐사자의 성별은 시나리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취향 소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힐링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 KPC와 PC 간의 관계에 따른 스크립트 개편은 자유롭게 허용합니다만, 본 시나리오의 진상에 대한 개편(기믹, 신화생물에 관한 개편)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료 배포 시나리오인 만큼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키퍼링 커미션을 통해 플레이 하는 것을 금하며, 공개된 곳에서 시나리오를 플레이 하거나 중계하는 활동은 금합니다.
- 본 시나리오에 대하여 멘마 시나리오 등 비방 발언은 지양하여 주십시오.
- 본 시나리오에 대한 직접적 스포일러/공개적인 중계 등의 사실 발각시 지인제화 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의 약칭은 「메데렌」입니다.

개요

속눈썹의 틈새로 비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낮익은 천장을 대신해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 탐사자.”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보드라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당신을 내려다보는 KPC가 있습니다.

조금, 아니 꽤 옛된 모습이네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KPC는 낮익은 미소를 당신에게 지어보이며 손을 내밀어옵니다.

“우리 조금 걸을까?”

이하 내용은 KP를 위한 정보입니다.
플레이를 원할 경우 스크롤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0. 진상

이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KPC는 긴 세월 탐사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랑했을 수 있고, 긴 시간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PC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탐사자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삶을 함께 살아준 탐사자가 필요했으니까요.

탐사자는 아직 KPC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간에 의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므로. 하지만, 탐사자가 아직 그의 죽음을 모른다해도 죽음은 죽음이고, 끝은 끝이며, 이별은 이별입니다. 다만,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탐사자를 찾던 KPC의 간절함이 노텐스의 자비를 얻어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이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무지개 너머의 어딘가로 당신을 보내야 합니다.

0-1. KP노트

시나리오에는 탐사자와 KPC가 잘 꾸며진 정원을 함께 산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탐사자와의 추억을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시나리오의 주 콘텐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꽃말을 알고 있다면, 보다 즐겁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나리오 내에서도 [식물학] 또는 [교육] 판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잘 꾸며진 정원은 삶과 세월에 대한 비유입니다. 봄의 정원은 갓 태어난 생명을, 여름의 정원은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을의 정원은 수확이 있는 성인기를, 겨울의 정원은 인생의 끝을 나타냅니다. (꽤나 흔하디 흔한 비유일테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채워나갈 수 있다면 흔한 비유도 좋은 서사로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정원을 거처가며 KPC는 모습을 바꿔 탐사자와 함께 했던 세월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틀어 탐사자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음을 되새길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진행하심에 있어 KP님께서서는 KPC와 탐사자가 거니는 정원이 KPC의 주마등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이며, 탐사자에게는 꿈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심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나리오 플레이에 이입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KPC의 모습을 준비 해두심을 추천드립니다. 꼭 인장이 아니더라도 캐입을 위해 나잇대별로 자세한 설정을 넣어두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은 이별을 위해 고마움을 담아 서로를 마중합시다.

p.s. 시나리오 볼륨 자체는 작지만, 자율적인 RP 구간이 많고 탐사 오브젝트 역시 KP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키퍼링 준비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의 정원

속눈썹의 틈새로 비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낮익은 천장을 대신해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 탐사자.”

분명히 당신은 당신의 방에서 잠들었을 터인데...

의문을 느끼며 이리저리 시선만 던지는데 옛된 목소리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보드라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당신을 내려다보는 KPC가 있습니다.

조금, 아니 꽤 옛된 모습이네요.

어린이의 모습을 한 KPC는 낮익은 미소를 당신에게 지어보이며 손을 내밀어옵니다.

“우리 조금 걸을까?”

어설픔게 내밀어진 손을 잡고 일어나면, 당신은 이곳이 잘 가꿔진 정원이라는 것을 쉬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봄별이 하늘을 메우고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당신의 볼을 스칩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끄는 작은 손의 온기는 당신이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끌리는 대로 걸으면, 「봄의 정원」이라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얀 자갈돌이 빼곡히 깔린 길이 두 사람을 봄의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길을 따라 분홍빛 꽃잎 비를 뿌리는 벚꽃이 나란히 자라나 있습니다.
길가에 소담스럽게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도 아름답습니다.

하늘보다 푸른 빛의 날개를 지닌 나비가 두 사람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잠시 걸어도 좋겠죠,

KPC와 함께라면.

자유 RP 구간입니다. 탐사자에게 KPC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꿈이 있었어, 이런 미래를 꿈꿨어... 등 유아기의 KPC에 이입해서 탐사자와 RP해주세요.

KP님께서 하단의 공간 묘사를 참고하시어 RP 중간중간 루즈해지지 않도록 탐사 및 주변 묘사를 엮어주시길 바랍니다.

[봄의 정원]

봄의 정원에는 봄에 피는 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있습니다.

무지개빛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연못과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길처럼 새하얀 다리가 있습니다.

연못에는 탐사자의 모습은 비치지만 KPC의 모습은 비치지 않습니다.(해당 정보는 [관찰] 판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푸른 빛의 날개를 지닌 나비는 혼을 이끄는 나비로 KPC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것처럼 앞서나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KPC의 주변을 맴돕니다.

봄의 정원에 피어있을 만한 꽃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가렛: 국화를 닮은 하얀색 꽃으로 3~5월(봄)에 개화합니다. 꽃말은 순진무구함입니다.
- 금잔화: 오렌지 빛 또는 진한 노란색을 띄는 꽃입니다. 개화 시기는 3~5월이며, 봄에 많이 보이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하다는 묘사를 해도 어울립니다. 꽃말은 이별의 슬픔입니다.
- 히아신스: 흰색 또는 보라색 꽃으로 작은 꽃이 여러개 붙어 피는 꽃입니다. 4월에 주로 피며, 보라색 꽃의 꽃말은 비애, 다른 색의 꽃은 기억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조금 더 어울리는 꽃말이 될 듯 싶습니다.
- 유채꽃: 노란색 작은 꽃들이 여러개 붙어 피는 꽃입니다. 3~4월(이른 봄)에 피며 꽃말은 쾌활입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추천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KPC와 탐사자의 관계/KPC의 성향에 따라 봄에 개화하는 꽃들 중 꽃말이 어울리는 것들을 넣으심을 권장드립니다. 꽃말은 [교육] 또는 [식물학] 판정을 통해 전달해주세요.

충분히 RP를 진행하셨다면 다음 진행 구간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 RP 구간이 많은 시나리오이므로 루즈해지기 쉽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KP님께서 조절하셔서 이어가심을 추천드립니다.

각 정원을 넘어가는 구간마다 [듣기] 판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기] 판정은 성공 판정 난이도를 각기 다르게 할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꿈 밖의 현실세계에서 KPC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벨 소리가 꿈 속 탐사자에게 들려오는 설정입니다.

먼저, 「봄의 정원」에서 「여름의 정원」으로 넘어갈 때의 [듣기] 판정은 ‘극단적 성공’ 이외에는 모두 실패로 간주합니다.

극단적 성공 시, 탐사자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신호음을 듣습니다.
그 외, 탐사자는 별 다른 특별한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름의 정원

봄의 정원의 끝, 두 사람은 보랏빛의 등나무 꽃이 커튼처럼 내려앉은 길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볍게 RP를 추가하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길의 끝에 다다르자, 따스함보다는 뜨거운 햇살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여름의 정원」이라 적힌 팻말이 바람조차 불지 않는 햇빛 아래 놓여있네요.

그 팻말을 등지고 당신에게 웃어보이는 KPC의 모습은 여전히 당신의 일생에 걸쳐 익숙한 것입니다.

다만,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이전의 모습보다는 조금 자란 것 같네요. [이성] 판정(0/1)

어느새 졸업 앨범에서 봤던 것 같은 교복도 입고 있습니다.

“여름이네, 그렇지?”

KPC는 그다지 동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마주본 채로 뒷걸음질 치며 당신을 이끕니다.

KPC에게 이끌려 팻말 앞까지 다가선 당신은 그곳에 자전거가 놓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 자주 타는, 그 앞에 바구니가 달린 작은 자전거입니다.

KPC는 안장 뒤쪽에 달린 작은 좌석에 당신을 앉히고 웃어보였습니다.

“가자, 탐사자.”

자전거 안장에 앉은 KPC의 등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금빛 해바라기 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KPC는 발을 굴렀고 흙으로 난 길 위로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일었습니다.

이곳은 여름입니다.

자유 RP 구간입니다. 탐사자에게 KPC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었어, 학교를 다닐 때 이런 학생이었어... 등 청소년의 KPC에 이입해서 탐사자와 RP해주세요.

KP님께서 하단의 공간 묘사를 참고하시어 RP 중간중간 루즈해지지 않도록 탐사 및 주변 묘사를 엮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의 정원]

여름의 정원에는 여름에 피는 꽃들이 그 생명력을 다해 화려하게 피어있습니다.

보라빛의 새들이 구름한점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밭 사이로 난 길은 언제까지고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면 뜨거운 햇살이 덥게 느껴질 법 한데, 당신도 KPC도 땀을 흘리며 더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더위가 느껴진다. 정도만 인지하고 있을 뿐.(해당 정보는 [지능] 판정이나 관련된 RP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름의 정원에 피어있을 만한 꽃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바라기: 금빛의 꽃잎을 지닌 커다란 꽃입니다. 개화 시기는 7~8월이며, 무리지어 피어있습니다. 꽃말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입니다.
- 나팔꽃: 넝쿨로 기어올라가 피는 꽃으로 보라색입니다. 개화 시기는 7~8월이며, 이른 아침에 핍니다. 속절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닙니다.
- 분꽃: 주로 짙은 분홍빛을 띠는 꽃입니다. 분가루 같은 것이 날립니다. 별이 잘 드는 곳에서 피며 6~10월 사이 개화하지만 주로 뜨거운 여름에 잘 피는 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말은 수줍음입니다.
- 플록스: 분홍빛 꽃이 여러개 같이 붙어있는 모양의 꽃입니다. 6~7월에 꽃이 피며 꽃말은 당신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당신의 꽃이 됩니다, 입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추천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KPC와 탐사자의 관계/KPC의 성향에 따라 여름에 개화하는 꽃들 중 꽃말이 어울리는 것들을 넣으심을 권장드립니다. 꽃말은 [교육] 또는 [식물학] 판정을 통해 전달해주세요.

충분히 RP를 진행하셨다면 다음 진행 구간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 RP 구간이 많은 시나리오이므로 루즈해지기 쉽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KP님께서 조절하셔서 이어가심을 추천드립니다.

각 정원을 넘어가는 구간마다 [듣기] 판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기] 판정은 성공 판정 난이도를 각기 다르게 할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꿈 밖의 현실세계에서 KPC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벨 소리가 꿈 속 탐사자에게 들려오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여름의 정원」에서 「가을의 정원」으로 넘어갈 때의 [듣기] 판정은 ‘어려운 성공’ 이외에는 모두 실패로 간주합니다.

어려운 성공 시, 탐사자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신호음을 듣습니다.

그 외, 탐사자는 별 다른 특별한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을의 정원

여름의 정원의 끝,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비를 피하려 자전거 보관소 지붕 아래로 달렸습니다.

그 곁에 핀 수국이 비를 맞아 여름 빛의 수채화를 완성합니다.

푸르디 푸른 여름에 보랏빛 수국의 향기가 더해지고,

촉촉한 비의 냄새가 어쩐지 더위마저 식혀주는 기분이 듭니다.

가볍게 RP를 추가하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비가 잦아들자, 기분 좋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곳은 「가을의 정원」 일까요?

어느덧 조금은, 아니 꽤 어른스러워보이는 KPC가 교복을 대신해 멋들어진 정장을 입고 당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 판정(0/1)

맞잡은 손 마디의 두드러진 모양새가 KPC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KPC는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로 난 길로 당신을 이끕니다.

그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말이 필요없는 순간이 있는 법이죠.

나무들 사이로 「가을의 정원」 이라 적힌 작은 팻말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자유 RP 구간입니다. 탐사자에게 KPC의 성인시기(사회인 시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 됐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삶을 꾸렸고... 등 사회인 시기의 KPC에 이입해서 탐사자와 RP해주세요.

KP님께서 하단의 공간 묘사를 참고하시어 RP 중간중간 루즈해지지 않도록 탐사 및 주변 묘사를 엮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정원]

가을의 정원에는 가을에 피는 꽃들이 가로수 사이로 피어있습니다.

본 적 없는 빛의 낙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아있을 만한 벤치와 그 곁의 가로등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때때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PC의 안색을 살펴보면, 어쩐지 어딘가 좋지 않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해당 정보는 KPC를 상대로 [관찰] 판정을 하거나 [심리학]으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점점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을 RP에서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가을의 정원에 피어있을 만한 꽃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울꽃: 보라색 또는 하얀색 꽃으로 종처럼 작은 꽃들이 몇몇개 함께 피는 꽃입니다. 개화 시기는 9월로 꽃말은 만족.
- 데이지: 주로 하얀색의 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화시기는 9월로 순진무구, 희망의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 메리골드: 이름처럼 노란색 작은 꽃입니다. 작은 꽃잎이 겹겹이 피어있는 모양새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지만, 서리 내릴때까지 피어있는 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꽃말은 언젠가 반드시 올 행복입니다.
- 코스모스: 다양한 빛의 꽃을 띄우는 익숙한 꽃입니다. 알록달록한 빛보다는 그 빛이 은은하여 가로수길에 많이 놓여있곤 합니다. 주로 가을에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꽃말은 순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추천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KPC와 탐사자의 관계/KPC의 성향에 따라 가을에 개화하는 꽃들 중 꽃말이 어울리는 것들을 넣으심을 권장드립니다. 꽃말은 [교육] 또는 [식물학] 판정을 통해 전달해주세요.

충분히 RP를 진행하셨다면 다음 진행 구간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 RP 구간이 많은 시나리오이므로 루즈해지기 쉽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KP님께서 조절하셔서 이어가심을 추천드립니다.

각 정원을 넘어가는 구간마다 [듣기] 판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기] 판정은 성공 판정 난이도를 각기 다르게 할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꿈 밖의 현실세계에서 KPC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벨 소리가 꿈 속 탐사자에게 들려오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을의 정원」에서 「겨울의 정원」으로 넘어갈 때의 [듣기] 판정은 ‘일반 성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공 시, 탐사자는 어디선가 울리는 신호음을 듣습니다.

실패 시, 탐사자는 별 다른 특별한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겨울의 정원

가을의 끝자락은 국화꽃과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색 국화 위로 하얀색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금새 녹아내려 사라졌지만, 당신은 주변이 서늘하다는 것을 쉬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굳이 팻말을 찾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찾아볼 필요도 없었을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겨울의 정원」입니다.

하얀 눈이 송이송이 내리는.

KPC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그가 다시금 하나의 시간을 지나왔음을 짐작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성]
판정(0/1)

탐사자에게는 KPC의 얼굴도 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음성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부터는 혼자 가야해, 탐사자.”

“나 혼자.”

그가 느리게 당신을 돌아봅니다.

하얀 눈처럼 텅없이 나이드는 모습의 그 사람이, 그리 낮설어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KPC라는 이유로.

그의 손 끝은 이미 그 생기를 잃어 창백한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그 손이 담던 온기도 파랗게 흩어져 갑니다.

그러나 혼자 가야하는 길을 앞두고도 그는 쓸쓸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당신의 손등을 쓸어내립니다.

“이 짧다면 짧은 생애에,”

“너를 만나서,”

“너로 인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서,”

“그 매 순간순간이 무척이나 기쁘고 사랑스러웠어.”

당신을 담은 눈동자도,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도 변함없이 다정합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과 달리 그의 미소는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자유 RP 구간입니다. 탐사자에게 KPC의 노년기(삶을 정리하는 시기, 죽음을 앞둔 시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마움을 담아봅시다. 한 평생 함께해준 탐사자를 위해서.

“되돌아보면,”

“나는 너로 인해 이 삶을 후회없이 꽃피웠구나.”

손등에 떨어진 눈송이가 빗물처럼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그의 등 뒤로 꽃이 비에 가까운 눈을 맞고 붉게도 피어났습니다.

꽃은 동백꽃입니다. 꽃말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가 지은 미소는 꾸밈없이 따뜻합니다.

“고마워. 고마웠어.”

“내가 진심을 다해 친애하는 탐사자.”

한 평생 늘 익숙하게 맞잡아 주었던 손길이 떨어집니다.

“안녕.”

KPC가 등을 돌려 눈이 내리는 앞으로 멀어져갑니다.

차가운 겨울의 배경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눈을 맞으며 피어난 꽃들은 이다지도 아름다운데, 그는 겨울의 창백한 하늘 아래로 흐려집니다.

... 멀리서부터 아득히 신호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KPC를 불러세운다/붙잡는다...엔딩 A

KPC에게 안녕을 고한다... 엔딩 B

언젠가 무지개 너머에서

[엔딩 A] 언젠든 너와 함께

차갑게 내리던 눈은 녹아 비가 되었습니다.

내리는 겨울 비 아래에서 다시금 맞잡은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천천히 당신을 돌아보고 마주하는 시선,

조금은 씩씩한듯 하지만 이내 당신을 보고 다시금 웃어 보이는 표정,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

당신은 KPC에게 안녕을 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득히 울리던 신호음이 점차 흐려집니다.

이 비가 그치면, 우리 함께 무지개 너머로 갈까요?

-Merry Bad Ending-

KPC: 사망

탐사자: 로스트

엔딩 해석: KPC와 함께 탐사자는 저승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엔딩 B] 언젠가 다시 함께

차갑게 내리던 눈은 녹아 비가 되었습니다.

그 비가 우리가 참고 있는 눈물과 닮아있다고 당신은 느낍니다.

아득히 울리던 신호음이 점차 또렷해지면,

탐사자는 이내 자신이 꿈에서 깨어났음을 알아차립니다.

낯선 전화번호, 하지만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이의 부고...

비처럼 눈물이 쏟아질테지만,

그래도 안녕을 말할 수 있어서

그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우리는 잠시 이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무지개 너머에서 우리는—

-True Ending-

KPC: 사망

탐사자: 생존

보상: [이성] 수치 회복 +1d10%

후기

안녕하세요, 나오입니다. 38번째 시나리오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특별히 RT 이벤트로 진행되었던 '키워드 리퀘스트형' 시나리오였습니다. 주어진 키워드로는, '보라와 파랑', '다정함', '전화'가 있었는데 시나리오에 잘 녹아났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정함을 포인트로 잡아 적은 타인지 평소 적던 시나리오보다 부드러운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37번째) 시나리오가 독로지여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잔잔하게 나이를 함께 먹어 다정한 이별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으니까요. 반전도 크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시나리오 자체의 볼륨은 적지만, KP님이 재량껏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